

문화·관광으로 도민 삶 풍요로히... 지역문화 성장 플랫폼

재단 설립 10주년... '지속가능 미래 만드는 최고의 재단' 비전 설정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으로, 전북의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기관이다.

재단은 2015년 설립된 후 실제 업무는 2016년 4월부터 시행해 올해로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은 재단은 2022년 10월 이경운 대표이사 취임 후 연임을 거쳐 조직과 경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서 현재까지 전북도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관광 전북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재단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전북 예술가의 권리 신장을 비롯한 창작하기 좋은 전북 도민에게는 문화가 일상이 되는 전북 세계안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전북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창의·지역상생·글로벌 연계·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1차 3본부 1센터 7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며 전문성과 효율성 높은 조직을 만들고 있다.

재단은 전북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북의 관광·브랜드 구축, 전북형 MICE 산업 환경 조성, ESG 기반 경영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라는 4대 경영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48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문화예술 분야 317억원, 관광·MICE사업 73억원 등 도민과 지역 현장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단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은 도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핵심 사업이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480건의 사업에는 10개 장르 예술가 1만4,000여명이 참여해 공연·전시·출판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며, 약 35만 명의 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연·시각 분야 우수콘텐츠 발굴 사업,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예술가와 민간 문화공간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지속가능 문화예술 성장

전북 관광브랜드 구축

MICE 산업 환경 조성

ESG 기반 경영혁신 등

4대 목표 중심 사업추진

도 강화하고 있다.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국비 9여억원을 확보하고, 인구 소멸지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 문화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장애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는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도 대표적인 성과다.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하는 협업 활동을 지원해 10개 그룹 장애인 43명이 전시, 공연,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북은 문화이용권 발급대비 이용률 전국 3위를 기록하며 문화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예술인의 창작활동뿐 아니라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운영하며 중견작가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과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꿈다락 문화학교'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등을 통해 14개 시·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옛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공간은 주민이 예술가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기획 전시, 문화 행사는 물론 도내의 여러 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사회적 약자와 주민 협업 사업 등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10주년.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제공)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관광 분야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으로 3년간 국비 13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워크케이션'과 '전북 한 달 여행하기'를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전북 자유관광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아울러 6개의 전북 테마(향토문화, 문화예술, 역사문화, 자연휴양, 종교관광, 미식관광)를 활용한 관광상품 116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베트남·몽골·러시아 등과 관광객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관광설명회를 개최해 전북의 역사·문화·자

연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서부내륙권 홍보 부스를 운영해 2년 연속 수상했으며, 전북관광 기업지원센터는 우수 평가와 수혜기업의 전국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 관광기업 육성 성과를 거뒀다.

마이스(MICE) 분야에서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유니크메뉴를 발굴하고 지역 기업·공간·인력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소규모 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전북을 새로운 국제 관광·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14개 시·군의 협력, 국가기관 및 출연기관과의 공동사업 발굴, 지역상생 기부 문화 확산, 메세나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모사업에 ESG 경영 가산점을 도

입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환경·사회·책임 경영 가치를 확산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재단은 성과 중심의 경영혁신과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경영개선 유공기관 장관 표창과 양성평등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조직 운영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재단은 지역 현장과 밀착하며 전북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도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북인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관광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이경운 대표이사 “지난 10년, 도민 응원 속 성장... 새로운 10년 준비”

Q.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 재단의 지난 10년은 도민의 응원과 문화예술·관광 현장의 도전 속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예술인과 관광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 가족 친화 인증, 2년 연속 경영평가 최고등급 달성 등 내부 만족도 역대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두셨는지요?

- 직원들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가 기관의 성과와 연결되도록 경영관리와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Q.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올해는 2년 차를 맞은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의 마을 이야기와 주민의 삶을 기록해 문화자원으로 발전시켰으며, 올해는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이야기를 출판, 공연, 전시, 관광상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지식재산권으로 확장해 지역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살아 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지역·연령
지원 사각지대 고려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함께·놀자·가자 전북’
도민·예술인·관광객
서로 연결되는 전북 의미

문화예술,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7억원 규모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전북의 역사·문화·예술 등 인문자원을 활용한 '인문치유'를 지역 특화 테마로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 전북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에 대한 유형별 육성체계 지원, 관광상품 유통채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소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 재단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르·지역·연령과 지원 사각지대를 고려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지역문화를 발굴·기록하고, 도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공간을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연계와 어린이극장 운영 등을 통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Q. 함께·놀자·가자 전북의 의미는?

- 함께·놀자·가자 전북은 문화와 관광을 통해 도민과 예술인, 관광객이 서로 연결되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는 지역과 세대 간 협력, ‘놀자’는 일상 속 문화 향유, ‘가자’는 전북 곳곳을 찾아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

으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Q. 전북형 문화 집간소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만든 것인가요?

- 전북형 문화집간소는 도민과 예술인이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사업의 기획·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자치 모델입니다.

주민과 예술인이 지역의 문화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이를 공연·전시·축제·기록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도민이 문화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특별한 철학은?

- 문화예술은 누구나 지역과 나이, 환경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자원과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전북 문화관광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 전주매일 독자와 전북도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지난 10년간 재단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며, 전북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연임하며 재단을 이끄는 이경운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현장과 중앙정부,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68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난 이 대표이사는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국회에서 정동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정책보좌관, 아시아문화개발원 사무국장,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국가 문화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역 문화 현장을 두루 체험하며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10월 전북문화관광재단 제4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전북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크게 힘써왔다. 이 대표이사는 재임 기간 새로운 관광 분야 사업을 발굴해 전북 관광산업의 위연을 확장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조직 내부 운영에서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와 관광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